



전병헌 협회장은 “프로리그와 관계된 모든 분들의 열정과 공헌이 없었다면 14년 역사는 불가능했을 것이다”며 “e스포츠 시장을 선도하고 주류 문화로 만드는 기여한 스타크래프트 프로리그가 선수와 팬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기억 속에 그리고 마음속에 자랑스럽고 소중한 자산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민 기자 dionys@donga.com